

The Future VIII

어디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가?

1. 시작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시작은 그래서 이유와 의미가 된다.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다룬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강력하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다. 시작을 알지 못한 채 가는 것만큼 답답하고 불안정적인 것은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시작을 알고 가는 인생은 중간과 마지막이 선명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시작을 모르고 가는 인생은, 언제나 존재적인 물음 앞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왜 그런가? 현재와 미래는 내가 개척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은 내가 만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2. 인생, 신앙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첫 단추를 잘 끼야 하는 것이다. 인생의 단추가 있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면, 아무리 밑에서 그 단추를 잘 맞추어 끼우려해도 수정할 수 없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신앙에 적용해보면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인생을 말한다. 여기서 구원이란 중간에서 개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삶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거듭남'을 말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말한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장소가 수정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이다. 옮겨진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내 삶의 변화는 시작이 바뀌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3. 아담으로부터 시작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의 시작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서 시작되어 타락한 아담으로 끝이 난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첫 사람이다. 즉, 시간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시작은 아담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다.

[마태복음 1:1-2, 16]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계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조상이(시작)이 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16절에 보면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되신다. 즉,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의 시작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4.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은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는 존재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아담 자신을 찾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미 아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 들려온 것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응답하여 원래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발견했다면, 아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탕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원래의 아담, 복 있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그 자리가 아담의 자리이며, 아버지 아들로서의 탕자의 자리이다. 아버지 품 안에서 권위와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된 탕자의 삶은 새로운 삶이지만, 이미 있었던 삶을 찾아온 것뿐이다. 모든 복이 자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을 것이다.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에 답하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면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무에 숨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물으신 것은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 **아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아담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이다.

5.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로마서 5:12-15]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4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15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 12절 -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 14절 - 범죄 한 한 사람 아담의 시작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아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시작을 아담을 통해 예고한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두 번째 시작의 한 사람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은 바로 '시작'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시작이 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즉 시작)으로 표현된 것이다.

6.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나'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신다. "네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1-2]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8:1-2절을 보라.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강조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즉, 우리는 '승리'안에 있다. '치유'안에 있다. '기쁨'안에 있다. '약속'안에 있다. '부활'안에 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시작되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 속에서 사망과 정죄함은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근거가 믿음의 '나'로 당당히 서는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슬픔, 걱정, 근심, 질병, 두려움 안에 있지 않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분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선포해야 한다. 나는 '충만함, 부유함, 담대함, 기쁨, 능력' 안에 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